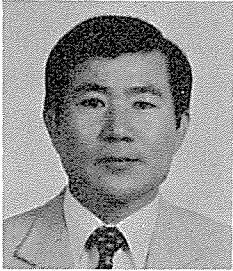


유제품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연구개발 방향

박 정 남
(서울우유 기술연구소장)

1. 머릿말

농수축산물의 수입자유화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UR협상이 타결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닥아 오고 있으며 농민단체들이 아무리 반대데모를 한다고 해도 수년내 완전 개방될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정책적으로 농사를 보호육성해 왔기 때문에 안정된 기반위에서 농사를 지어 오고 있으며 자국의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후와 지형여건등이 선진국과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정책적으로도 보호 육성받지 못하여 아직 년례행사처럼 각종 농산물 수급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판에 수입자유화란 물결이 밀어 닦쳐오고 있는 것이다. 농수축산물중 유제품은 그 역사가 짧고 낙농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원유품질이 아직도 구미 선진국에 훨씬 못미치고 대부분의 기구 사료, 가공기계등도 외산에 의존하므로 생산비가 많이들어 가격면에서도 경쟁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말하자면 품질과 가격으로 뒤떨어져 있다.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의 생산비가 낮고 또 위생적으로 취급되어 완제품까지 국제기준의 품질을 유지하자면은 많은 노력과 세월이 필요하다.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류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삼과 그 가공품과는 달리 유제품은 우리 전통식품도 아니므로 우리 입맛에 맞는 유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일도 어려운 일인데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독특한 유제품을 개발한다는 일은 더 더우거나 어려운 일이다.

최대의 방어는 공격이므로 수입자유화를 수출 자유화로 바꿔 대처하려 해도 유제품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취약할 뿐이다.

한편 정부는 축산물 수입개방 일정대로 92년부터 94년까지의 1차 개방예시품목을 GATT에 금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97년까지 개방해야할 2차 예시품목도 94년 3월말 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유제품도 예외는 아니어서 유제품 그룹별 개방일정을 마련해 놓고 조금씩 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유가공업계 그리고 낙농가는 공동으로 힘을 합하여 제도적인것과 경영의 구조적인 취약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고 선진기술을 과감히 받아들여 품질과 가격에서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의 연구개발이 발빠르게 이루어 져야 하겠다.

2. 낙농정책 연구개발 방향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풀만으로 국민 기초식량을 되게하는 낙농산업은 정부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산업이다. 건강식품인 우유와 고기를 생산하고 자연과 국토 보존 기능이 많으며 낙농기구, 사료산업, 유처리 가공업등 연관부문 산업의 유기적 발전으로 고용 증대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낙농산업을 정부는 확고한 의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가. 각종제도의 개선

오랫동안 낙농단체에서 건의해 오고 있는 낙농진흥법의 합리적 개정으로 수입안정 장치를 마련하고 생산조절과 소비확대를 꾀하도록 한다. 이 법으로 집유일원화, 검사공영화, 원유가격제도 개선(필히 위생등급에 의한 가격제도 포함)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유제품 수출입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 조세 및 허가업무 개선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의 관세, 부가세를 면제하여 생산비를 낮추도록 하며 유제품 가공 제조 허가업무를 농림수산부로 이관하고 수입 농축산물의 검역, 안전검사도 담당하도록 한다. 이는 전체 물량의 안정적 공급과 낙농가는 물론 유가공업체의 기술증진도 이룰 수 있다.

다. 전업 낙농시대 조성

초지와 유희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전업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다지기 위해 집단적인 낙농단지를 조성할 것을 연구한다. 이로써 도로교통, 전기 수도시설을 통합하며 막대한 자금

소요되는 폐수처리시설의 공동화, 집유, 진료 수정서비스의 효율적 이용으로 막대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상 혜택이나 이전비 보조, 양축설비 지원등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라. 낙농연구소, 유가공연구소 설립

국가기관으로서의 낙농 전문연구소와 유가공 전문연구소를 설립하여 낙농의 기초부터 유전공학을 이용한 최첨단의 변식 육종까지를 연구하여 기술지원을 낙농가에게 하도록 하며 유가공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취약한 부문을 지원하도록 한다.

마. 유제품 및 유사유제품의 분류조정

코코아 조제분유같은 유사유제품을 유제품으로 분류하는등 현재의 국제통일 상품분류(HS)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부적정한 수입요령 및 관세율의 조정도 유가공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조정되어야 한다.

바. 농가 복지 정책 강화

전 농업분야에 해당되지만 낙농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어 안심하고 안정적인 생산에 임하도록 한다. 농민연금제, 보험 등.

사. 수입개방 유제품의 조정

년차적인 유제품 개방품목을 세분하여 국내에 영향이 덜 미치는 품목부터 개방하되 최종까지 보호되어야 할 품목(NTC 품목)을 협상력의 발휘로 사수하여야 한다. 즉 제품특성상 개방되어도 보존기간이 짧아 신선미를 잃는 살균 액상제품부터 개방하되 전지분유나 탈지분유처럼 무한한 용도가 있는 제품은 끝까지 수입을 막아야 한다.

아. 학교급식, 군급식 확대

제2세대의 건강과 전력향상을 위해 더 많은

급식제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전국 양노원에 무료급식되는 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자. 홍보 강화

국민들에게 유제품에 대한 지식계몽과 식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 국민전체의 건강을 위해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거기에 유제품이 꼭 포함되도록 한다. 식생활 개선은 국가사업이다.

3. 유가공업계의 연구개발 방향

원유를 원료로 각종 유제품을 생산, 유통시키고 있는 유가공업체들은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이 최우선 과제이다. 다양한 품목으로 개발확대하여야 하나 원유의 질 향상은 그보다 먼저이다.

가. 원유 생산비 저하책

납유하는 목장을 지도하여 원유의 생산비를 낮추도록 경영을 개선한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낙농가와의 유대를 향상 강화하고 한배를 타고 있는 운명을 인식하도록 한다.

나. 품질향상

원유부터 완제품까지 완벽한 품질관리로 국제 수준의 유제품을 만들도록 한다. 혁신적인 품질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저온성세균, 항생물질, 잔류 독성물질 등을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의 개선은 끝없는 연구개발과제이다.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든 생산요소를 관리함으로써 신선하고 저렴한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다양한 제품개발

유제품의 종류를 다양화시켜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수입이 자유화되면 외국의 다양한 유제품이 쏟아져 들어올텐데 단순한 기존 제품들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더 많은 신소재를 개발 이용하고 우리 입맛에 맞는 우유가공품, 치즈, 발효유를 개발하여야 한다. 우유속의 기능성물질을 추출 상품화하는 일도 진행되어야 한다.

라. 다양한 포장개발

시각적으로 어필하고 단순하면서 실용적인 제품포장도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많은 포장재료 중 유제품과 매치(match) 되는 신소재를 찾아 적용시킨다.

마. 유통구조 개선

중간마진이 많은 현재의 유통구조를 과감히 개선하여 수송비와 인건비를 줄이는 물류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매일 배달제를 격일제 또는 일주일분제로 바꾼다. 슈퍼마켓에 직판하거나 대형 유통점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바. 신시장을 개척

기존시장을 서로 제살 깎아먹는식으로 빼앗지 말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한다. 기존제품의 꾸준한 개선(개량)과 새로운 연령층의 고객창출로 신생아에서 노인까지 전 세대가 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한다.

사. 신기술 도입과 적용

새로운 유가공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에너지 절약형이며 원가절감이 되는 공정으로 기존시설과 공정을 변신시킨다. 새로운 살균법(적외선, 초음파, 고압, 분리등 이용). CIP법 개선으로 세제와 시간절약, 영양분이 덜 손상되는 제조기술 등

아. 부산물의 이용 증진

치즈제조 부산물인 웨이의 이용 극대화를 위한 조치를 모든 제조업자가 노력한다. 버터의 부산물인 버터밀크도 훌륭한 자원이다.

자. 공동 홍보 활성화

소비자에게 유제품을 인식시키는데 공동으로 대처하여 경쟁이 아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한다. 각종 음료의 광고홍수속에 차별하게 우유속의 기능성 물질과 생체조절 인자를 인식시켜 건강을 위해서는 유제품을 상용해야겠다는 마음을 심어 주고 외국산 보다 안전성있고 신선하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우유의 질병예방효과와 성인병 예방효과는 학계의 연구논문과 함께 크게 홍보할 가치가 있다.

차. 수출길을 모색하고 개발한다.

동남아, 중국, 소련, 동구권등 낙농및 유가공산업이 발달되지 못한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한다. 낙농이나 유가공기술이전 또는 플랜트 수출도 있을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땅에도 낙농지대조성과 유가공장 건설분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것이다.

3. 낙농가의 연구자세

정부낙농정책 의지부족과 유가공업체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낙농을 평생의 생업으로 여기는

낙농가는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경영을 이끌어 가고 있다. 좋은 대책 많아도 실천안하면 무용지물이므로 의지를 가지고 쉬운일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 가족단위로 전업화하고 가계화를 서두르며 번식, 사양등 모든 부문의 신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여 생산비를 낮추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외국의 유제품이 들어오더라도 신선한 액상우유는 소비자들이 찾아 줄것이므로 양질의 우유 생산에 전념하여야 한다. 원유위생등급에 따른 가격제가 실시되면 제값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대인상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와 유가업체와 공동으로 정책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대소비자 홍보에 동참하여 소비확대를 꾀하도록 한다. 자조금제도, 헬퍼(Helper) 제도를 연구개발한다. 낙농환경 문제, 젖소의 유전적 능력개량, 전산화된 사양관리 등 공부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맺는말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책은 지금까지 여러단체, 학계, 정부에서 논의되어 왔다. 전부가 좋은 방안이었으며 바로 실천되어야 할 사항들이었다. 가까운 곳, 쉬운것 부터, 나 자신이 실천하는데 앞장서야겠다. 그 누구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고 논란의 시간 자체가 아까울 뿐이기 때문이다.

